

# 광주시-주한중국상의, 경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 가오천 상의 회장 등 주요 임원진 20명 방문 한·중기업 투자 무역 확대 등 실질 협력 추진

광주시가 중국 기업·경제인들과 경제·문화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임원진을 접견하고 한·중 기업 간 투자 및 무역 확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가오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쉬즈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를 비롯한 주한중국상의 주요 임원진 20명이 참석했다.

고광원 부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의 대표 인공지능(AI) 도시이자 미래모빌리티 도시로서 첨단산업, 복지정책, 문화예술 등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광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중국과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오천 주한중국상의 회장은 “광주는 산업 잠재력과 문화적 매력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중국 기업들이 광주와 더 많이 협력하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임원진을 접견하고 한·중 기업 간 투자 및 무역 확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교류하면서 한·중 공동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대표단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2025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광주의 산업·문화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한편 주한중국상공회의소는 2001년 설립돼 주한 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개 중국 기업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kwangnam.co.kr

## 정상용 복구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상용 광주 복구의원(사진)이 최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받게 됐다.

특히 ‘광주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해 폐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 점을 호평받았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원 북구유



정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받게 됐다.

로서 청렴한 의회 구현에도 앞장섰다. 정상용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kwangnam.co.kr

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제안 제시에 힘써왔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검토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리특별위원으로서 청렴한 의회 구현에도 앞장섰다.

## 광주창경센터, 초기투자유치 프로그램 ‘성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8일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5 초기투자유치 스프린트 MINI IR’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초기투자유치 스프린트’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템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 First IR을 시작으로 이후 약 6주간의 IR 컨설팅에서 피드백 보완사항을 반영, 예비 투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Mini I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총 11개사가 참여한 이번 IR 과정에서는 각사의 핵심 사업 아이템과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심사역의 세부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은 예비투자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기업은 향후 내부 투자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투자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광주창경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연계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단순 피칭 행사



에 그치지 않고 참여기업의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연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광주창경센터가 지난 2023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23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사업 안정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송대영 기자 sdw0918@kwangnam.co.kr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6~27일 국립장성순례원에서 봉사원 20명을 대상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 ‘숨에서 놀다’를 실시했다.

##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마음치유 프로그램 실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6~27일 국립장성순례원에서 봉사원 20명을 대상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 ‘숨에서 놀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음치유프로그램-숨에서 놀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로마테라피, 카프라 만들기, 정서지원 등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해 참가자들의 인지·정서·신체 능력 강화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3일 광주지역 봉사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서부권, 10월 동부권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봉사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 수해 복구 활동으로 지친 봉사원들의 몸과 마음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looks@kwangnam.co.kr

## 광주 계림1동 지사협, 저소득층에 과일 나눔

광주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위한 계절과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진행된 봄제철과일꾸러미 나눔사업 이후 두 번째 행사로, 과일을 사먹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계림1동 지사협 위원들은 복숭아, 멜론, 샤인머스켓, 사과 등 다양한 종류의 제철과일을 직접 포장해 저소득층 20가구에 전달했다. 김영순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들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계림1동장은 “계림1동 지사협의 세심한 복지 실천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kwangnam.co.kr

# PEOPLE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 광주 동구의회 찾아가는 달콤시원 팔빙수 봉사

광주 동구의회는 최근 자비신행회와 함께 계림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달콤시원 팔빙수 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문선화 의장, 노진성 부의장, 김현숙·박중근·박현정·이지에 의원과 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팔빙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팔빙수 300인분을 만든 뒤 계림2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문선화 의장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다”며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kwangnam.co.kr



## 전남도, 사랑의 헌혈 행사

전남도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나눔인 헌혈의 가치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도청 오지호문(북문)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사랑의 헌혈 행사는 여름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맞아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헌혈 버스 운영과 함께 기념품 제공,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참여 유도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력해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헌혈 참여자는 기본 건강검진과 함께 헌혈 증서를 받게 되며, 이는 추후 본인이나 가족이 수혈 시 사용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혈액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며 “나눔과 실천이 일상화되는 건강한 헌혈 문화가 전남 전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이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연 4회 헌혈 버스를 운영하고, 홍보물과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장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운세 (음력 7월 7일)

48년생 내색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60년생 쫓으면 가지를 허락 시킨다  
72년생 감정을 공격한 장소에서 풀지 말라  
84년생 새 의상 구입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96년생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51년생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한다  
63년생 소모적이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  
75년생 추매에게 빈틈을 보이는 것도 관건다  
87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99년생 찾아보라 나의 몫이 될 것이다

54년생 아랫사람과의 화해·양보에 힘써라  
66년생 배우자를 높이든다면 이롭고 좋을 것  
78년생 나그네 떠돌아다니듯 한다  
90년생 습관적인 행동을 주의하라

57년생 불리하니 사비에 가담치 마라  
69년생 장기로 지속돼야 효과를 보게 된다  
81년생 하늘에서 신을 내리는 형상  
93년생 직장내 화해해 일몰하면 결과 좋다

49년생 안·밖으로 좋은 기운이 감동될 것  
61년생 일이 많아지니 마음은 편만  
73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85년생 거리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  
97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52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  
64년생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빌리면 잘된다  
76년생 발바닥에 불난다  
88년생 소망이 이뤄지겠다

55년생 손해 보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라  
67년생 앞서가지 말라 명맥만 유지되리니  
79년생 신속하고 정확하게야 성취할 수 있다  
91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차질이 없다

58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70년생 광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82년생 배우자의 마음 돌릴 길이 없다  
94년생 친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자

##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가족과 돈 거래 삼가·보충 서지 마라  
62년생 체계적으로 준비 해야겠다  
74년생 마음이 낙담할 날  
86년생 도움을 구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98년생 가족 조인 듣고 계획 세워라

53년생 소문만 믿고 얘기하다간 다들 생긴다  
65년생 선홍후길이나 집안 평온  
77년생 자신의 분수대로 언행하라  
89년생 결혼 이사가 구제화 될 것

56년생 재앙은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68년생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가 있다  
80년생 소손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라  
92년생 고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때

59년생 그 거래는 절대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71년생 지인의 말은 무시해도 좋다  
83년생 부흥산에 미련을 갖지 말 것  
95년생 친구와 상의하면 길이 보인다